

#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13

## 해방전후 明文堂과 以文堂을 중심으로

◇ 말씀해주신 분

김성원씨

67 · 명문당 편집교수

1920년대의 가장 큰 서점이자 출판사였던 이문당과, 박문서관 등에서 일하던 김혁제씨가 창립한 명문당은 일제시대에 가장 활발한 출판 활동을 벌인 곳들이다. 1936년 15세의 나이로 명문당에 입사, 현재까지 편집인으로 일해오고 있는 김성원씨로부터 명문당과 이문당을 중심으로 한 당시 출판·서적상계의 이야기를 듣는다. 대담은 본지 편집위원 이경훈씨가 맡았다.

— 오늘 김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은 60여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당과, 잘 알려지지 않은 1920년대의 대형서점인 이문당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해서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출판계에 발을 들여 놓게된 동기와 시기, 그리고 첫 근무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 제가 출판계에 몸담게 된 것은 1936년의 일입니다. 당시에 꽤 명성을 떨치고 있던 명문당이 저의 첫 근무지였죠. 입사할 당시 시간당 96번지에 위치했던 명문당은 곧 식산은행의 사택으로 일인들에 의해 강제매입을 당해서 수송동 20번지로 쫓겨갑니다. 그 이전에도 관훈동 24번지, 낙원동 35번지, 수송동 8번지 등으로 전전했던 명문당이 현재의 안국동 17번지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은 식산은행에 의해 수송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몇 차례의 이전을 거듭한 뒤였습니다.

— 입사 당시의 선생님의 나이는 몇살이었습니까?

**김성원** — 제 나이 15살이었습니다. 낮에는 명문당에서 일을 보고 밤에는 선린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마침 명문당에선 전과지도서를 출판하고 있던 때라 매일같이 교정을 보던 제가 시험을 치렀으니 잘 볼 수밖에 없었죠. 그 덕분에 1등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가 학창서림이나 영창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어왔지만 이문당에 관한 기록이나 아시는 분은 별로 없더군요. 이문당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원** — 이문당 창립은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고, 정확한 기록을 가진 것도 없어서 확실한 연대나 배경을 알기는 없습니다만 1910년대 중반쯤으로 추측합니다. 1926년에 창립된 명문당보다 약 10년쯤 앞서 창립됐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창립자인 김갑제씨와 저와는 친척간이기도 하고 제 부친께서 이문당에 관여하셨던 관계로 이문당의 전체적인 모습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명문당의 창립자인 김혁제씨와 이문당의 김갑제씨, 두분의 고향은 충남 보령군 웅천면 죽천리로 동향분들이죠.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김갑제씨와 동향이자 친척간인 김혁제씨가 그러한 이유로 이문당에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 선친께서는 어떻게 이문당과 관계하셨는지요?

**관직 뺀 한말 고관들 출판계로 많이 나서**

**김성원** — 김갑제씨와 제 선친께서는 일가친척이셨죠. 그래서 1924년에 족보를 만들려고 상경하신 선친께서는 김갑제씨의 소개로 박문출판사의 인쇄소인 대동인쇄소에서 족보(갑자보)를 만드셨습니다. 귀향하려는 선친을 김갑제씨가 붙잡아서 이문당에 남게 되신 겁니다. 이문당이 화재를 입은 적이 있어요. 새로 사옥을 지었는데 관훈동 입구의 3층 건물로 후에 신민당 당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때의 이문당 편집책임자가 저의 선친인 김경제씨입니다.

— 당시로서는 가장 큰 서점이자 출판사였던 이문당의 책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원** — 워낙 많아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주로 전과지도서(요즘의 학습참고서류)를 출판했습니다. 「청춘광야」 「만주의 달밤」 등의 시집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행이었던 「농촌부업 성공법」이니 하는 책도 출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자영이 쓴 「사랑의 불꽃」이란 책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4.6배판 크기에 120면 남짓한 책이었는데, 지금도 고서점에서 가끔 눈에 띄더군요. 한달에 2000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베스트셀러였어요. 매장에 깔아놓으면 책값 50전을 슬그머니 놔두고 슬쩍 책보로 가려서 사가는 고객이 있었죠. 그때의 여학생들은 연애소설을 그런 식으로 사갔던 겁니다. — 격세지감을 갖게 하는 얘기군요. 김갑제씨의 사진은 남아 있습니까?

**김성원** — 제겐 없어요. 딸만 둘로, 아들을

“노자영이 쓴 연애소설 「사랑의 불꽃」이 이문당의 베스트셀러였죠. 당시 한달에 2천부씩이나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여학생들은 연애소설을 드러내놓고 사지 못했습니다. 책값 50전을 슬그머니 놔두고 책보로 슬쩍 가려서 사가곤 할 정도였으니까요.”



김성원씨.

못두었던 분이셨고 동생이 한분 계시지만 이북에서 피난와서 고향에 병원을 차렸다는데 난리통에 사진인들 남아 있을까요. 이문당을 정리한 김갑제씨는 만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호박농사를 지었지만 일찍 다퉈서 서리 탓으로 그만 농사는 다 망하고 끝내 동사했다고 들었습니다.

— 당시의 가장 큰 서점과 출판사였던 한성도서와 이문당과의 시장점유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김성원** — 이문당이 훨씬 컸죠. 사실 그 얘기를 해주실 분은 서재수씨란 분인데, 이미 작고 하셨으니 안타깝군요. 당시의 출판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실 분이셨는데, 보통학교도 못 나온 분이라 이문당에서 제 선친께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도록까지 선친의 안부를 묻곤 하죠. 여담이지만 행림출판사 사장 이갑제씨의 조부이신 이태호씨, 문교부장관과 한성도서 전무를 하셨던 이선근 박사도 제 선친과는 당시에 많은 교류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 김갑제씨가 이문당을 정리하고 만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후에 이문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성원** — 김갑제씨로부터 이석구씨가 매입하기는 했지만, 출판업에 익숙치 않은 경영인들의 참여로 사세가 기울어가고 맙니다. 이석구씨는 동덕여학교 설립자이기도 하지요.

**경무국 도서과서 사전원고검열**

— 당시의 가장 큰 서점으로 출판사로 위세가 당당했던 이문당과 설립자의 숨겨진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셈이군요. 그럼 이번에는 김혁제씨가 상경해서 명문당을 창립하게된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김성원** — 김혁제씨는 저희 집안 6대 종손이 있습니다. 큰집에서는 학업을 위해 그분을 저희 집으로 보내 공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3년을 견디더니 그만 서울로 올라가고 말더군요. 상경해서 이문당을 들락거리며 YMCA에서 하는 학교에 다니던 김혁제씨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경으로 건너갔지만 곧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관동대지진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돌아와서는 박문서관, 제일서점 등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26년에 원래 이름인 영계를 따서 영산방이라는 상호로 고분을 취급하는 서점과 함께 문산당이란 출판사도 겸업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인 출판을 결심하고 낙원동 35번지로 자리를 옮겨 사자그림을 표지로 꾸민 전과지도서를 낸 것이 명문당의 출발입니다. 당시의 우리나라 전과지도서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것과 4년제학교, 간이학교의 것이 있었는데 명문당에서는 4년제인 간도의 국민학교용 전과지도서까지 출판해서 판매했으니 대단한 규모의 출판사로 커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혁제씨가 처벌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일제 강압 시기

인 그 때에는 일본인들은 납본만으로 출판을 할 수 있었지만, 조선인의 경우는 달랐어요. 조선인이 출판을 하려면 원고를 경무국 도서관으로 가져가서 사전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통과하기가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 시기물인 전과지도서를 제때에 맞춰 출판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허위의 일본인 명의로 출판을 할 수 밖에요. 그러다 탄로가 나서 금고형을 당하는 곤욕을 치른 거죠. 일본인들은 그런식으로 조선인의 문화사업을 박해했습니다. 명문당의 출판자금을 지원했던 영창서관이 김혁제씨가 그런 일을 당하자 명문당의 책에 영창서관의 판권을 붙여서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재판을 통해 되찾은 일도 있었죠.

— 영창서관과 박문서관 등의 다른 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원** — 영창서관의 강희영씨는 원래 박문서관 출신이죠. 그러다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창서관을 냈는데, 박문서관보다 오히려 크게 성공합니다. 종각 근처에 매장을 두었죠. 지금의 교보문고처럼 고객이 무척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칠월에 2만여명의 농장을 매입했던 강희영씨는 자신의 아호를 따서 유희학원을 설립합니다. 당시의 출판업자들은 육영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문당 역시 동덕학교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활자재량의 선두주자는 박문서관이 아니었나 싶어요. 옥편을 만들면서 모양새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장활자를 깎아 썼죠. 「신시대」라는 잡지와 문고판을 출판하려고 새로운 활자를 깎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25가 나서 피난갔다가 돌아와 보니 복귀군이 훔쳐가고 없더군요. 박문서관 이전에는 회동서관이 상당한 비중을 가진 서점이었죠. 중종때의 「전운옥편」의 한자 훈을 지송옥씨가 풀어쓴 「자전석요」를 상해에서 인쇄해다가 판매했는데, 이익금은 서점인들의 단합을 위한 기금으로 쓰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업계발전을 위해 기여하셨던 회동서관의 고유상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 귀감이 될 일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당시의 서점은 출판업을 겸하는 것이 통례였던 것 같군요.

#### ‘한근에 얼마’ 식이던 책값

**김성원** —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출판사



명문당의 창업주 김혁제씨.

등록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저 납본만으로 출판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판을 해서 활자가 깨지도록 여러장의 지형을 떠서 서점 등으로 팔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형을 사서 인쇄를 하는 출판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춘향전」의 지형을 사서 「절대가인」 「옥중화」 「옥중한」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출판하는 웃지 못할 일이 많았어요. 박문서관, 명문당, 이문당 등 몇몇군데를 빼놓고는 마찬가지로 현실이었습니다. 책을 팔때도 요즘처럼 정가판매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도매점에서 저울로 달아서 ‘1근에 얼마다’하는 식으로 팔았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가마니 위에 펼쳐놓고 팔던 ‘빨간딱지’의 애정소설들이 그런 판매경로를 통한 책들이었습니다. 문화가 뒤떨어졌던 1930년대의 일입니다.

— 명문당 역시 전과지도서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 밖의 다른 책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성원** — 「별천지」라는 한장으로 된 출판사 광고물이 있었죠. 일종의 찌라시 비슷한 겁니다. 환산 이운제씨 등의 글을 실었죠. 문세영, 송완식씨 같은 분들도 필진으로 계셨고, 연희전문출신으로 카프문학을 하다 월북한 이동규씨가 있었는데 저와는 많은 일을 같이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의 글로는 「낙랑공주」 「뭇솔리니전」 「히틀러전」이 있었죠. 「나의 투쟁」을 번역한 「히틀러전」은 상당한 판매부수를 기록했어요. 중이가 귀한 때라 선화지에 인쇄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참 많이 나가더군요. 그밖에는 주로 농촌진흥과 자력개생을 표방한 「농촌진흥국어독본」 「농촌진흥조선어

독본」 「농촌진흥산수독본」 등이 있었습니다. — 저도 소학교 교사로 재직중에 야간학교에서 교본으로 사용했던 생각이 납니다.

**김성원** — 만몽일보사 문화부장으로 있던 신영철씨란 분은 편지 잘쓰기로 유명했어요. 사학자인 황의돈씨와 공저로 「학생서한문」이라는 책을내서 더욱 유명해졌죠. 명문당에서도 「신여성 편지투」 「학생편지투」 「사랑의 편지투」란 제목으로 그분의 책을 낸 일이 있었는데, 「사랑의 편지투」의 원고는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무당이 성행했던 시절이라 조판중이던 인쇄소가 곳을 하던 옆집의 화재로 함께 전소되었던 겁니다.

— 1940년대의 명문당은 전과지도서에 이어 이른바 아이디어 출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이번에는 해방을 전후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원** — 해방이 되니까 사회가 혼란해서인지 책이 통 안 나갔다고 합니다. 해방후에 처음으로 낸 것은 어떤 소설가가 쓴 「김유신 장군」이었다더군요. 이때는 제가 낙향해서 금융조합일을 하고 있던 때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1948년에 저는 상경하고 곧 서울고등학교 옆에서 육일서점 신재영씨의 도움으로 서점을 차립니다. 그러다가 명문당에 복귀해서 처음으로 만든 책이 「신옥편」이었죠. 음력 정월을 전후한 몇개월 동안의 판매량이 연간 5만부가 넘었던 「토정비결」을 출판한 것도 때를 같이 합니다.

— 지금도 책력하면 남산당과 명문당의 것이 유명한데, 책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성원** —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의학관계서적을 주로 출판하던 남산당의 책력과 명문당의 책력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1968년까지 명문당의 책력은 제가 도맡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구문화사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다른 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었죠.

#### 구두쇠로 유명했던 김혁제사장

— 6.25 동안 이후의 명문당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원** — 어디나 마찬가지로 겐지만 명문당 역시 자금부족으로 허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박영사의 안원옥씨가 찾아와서 고충을 말하길래 「가정보감」의 지형을 빌려 드리면서 2만부를 찍어 팔면 팬츠를 거라고 했더니,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1만5천부만 찍더라군요. 그런데 배분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서점

에서 주문이 쇠도한다면서 5천부를 더 찍더군요. 물론 나중에 2백부를 가져 왔습니다. 당시엔 지형을 빌려주면 1할을 책으로 받곤 했습니다.

— 명문당의 김혁제 사장은 출판업계에 일화를 많이 남겼던 분이라고 하던데요.

**김성원** — 아마 구두쇠라고 소문이 났을 거예요. 서점에 배분을 하러가면서 포장지를 아끼려고 보자기에 싸서 간다거나, 반품은 책을 맨 새끼줄을 이어서 쓴 일, 지방서점에 출장을 다닐 때 숙박비 절감을 위해 야간열차를 고집하던 일 등이 그 분을 그렇게 보게 했겠죠. 어려웠던 시절에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숭상수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명문당이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원** — 한문 서적의 영인본을 발행한 일이 아닐까요. 「사서삼경」 「동국여지승람」 등의 영인본 작업은 훌륭한 업적이라 하겠죠. 「사서삼경」은 원래 동국문화사에서 하다가 명문당으로 넘겨진 것인데, 현암사의 그것과는 달리 완역된 최초의 「사서삼경」인 셈입니다. 1970년 당시에 기계가 서지 않고 7판을 찍었다고 합니다. 제가 22년간에 걸쳐 완성한 4천면 가량의 자전이 있는데, 작고하신 김혁제씨와 공저로 출판했지요. 그것 역시 명문당이 해낸 큰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자사전과 자전, 옥편의 구분이 일반인들에게는 정확하지 않은데.

**김성원** — 한자사전은 단어를 함께 수록한 것이고 자전과 옥편은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요즘 한한사전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제대로 엮여진 것은 드물더군요. 왜냐하면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것들을 가위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를 거듭한 사전이 많기 때문입니다.

— 이제까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판계의 후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원** — 글썬요. 출판은 양심의 소산물이라는 게 제 소신이라고 할까요. 그릇된 생각과 어떤 오류가 활자화되고 나면 그것은 무구한 세월동안을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랄 따름입니다.

— 기록·정리 최태원 기자